

# 《世說新語》를 통해 본 王羲之의 인물형상\*

김진영\*\*

<목 차>

- 1. 머리말
- 2. 王羲之의 인물형상
  - 1) 王羲之가 처했던 시대상황
  - 2) 《世說新語》에 보이는 王羲之의 인물형상
- 3. 맺음말

## 1. 머리말

魯迅은 그의 《中國小說史略》에서 《世說新語》를 대표로 하는 수많은 소설들이 “혹자는 舊聞을 모아 엮고 혹자는 近事를 기술하였는데 비록 殘叢의 小語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었으므로 마침내 志怪의 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或者掇拾舊聞, 或者記述近事, 雖不過叢殘小語, 而俱爲人間言動, 遂脫志怪之籠也)<sup>1)</sup>” 라고 하고 있으며, 《世說新語》가 魏晉南北朝 志人小說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世說新語》 역시 《隋書·經籍志》와 《舊唐書·經籍志》에 〈子部小說家類〉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설이란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 동일한 형태가 아님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世

\* 이 논문은 2007년도 인덕대학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인덕대학 중국어과 전임강사.

1) 魯迅 著 《中國小說史略》(臺北, 風雲時代出版有限公司, 1992) 71쪽 참조.

《世說新語》가 세간의 수많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인물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殘叢小語로 간주된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종의 史的 사실이라는 성격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世說新語》의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각 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성격이나 개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거나 성격 또는 개성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한 인물의 완전한 형상<sup>2)</sup>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 같은 점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다. 이 점은 중국적 의미의 고대소설이나 현대적 의미의 소설 兩者 모두 마찬가지이다.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예술분야나 事物詩 같은 문학장르에는 인물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서사문학작품에는 반드시 인물이 등장한다. 동물이나 무생물이 주인공인 동화에서도 그 주인공을 의인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근대 이후 대부분의 소설이 리얼리즘이고, 소설 대부분은 인문소설로서 소설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인간형의 탐색과 인간상의 창조에 있다면 인물의 설정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36편에 걸쳐 1130여조의 故事 가운데 등장인물이 帝王, 士族, 文人, 賢者, 隱人, 和尚, 婦女子 등 東漢 末에서 東晉 末까지 약 200년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비록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인물의 형태, 유형, 성격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소설의 구조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sup>

본 논문은 이미 필자가 《中國文化研究》 3집과 8집에 발표한 논문의 연속시리즈로서<sup>4)</sup> 이 번에는 東晉의 서예가 王羲之(307-365)를 대상으로 그 고사를 적출 집

2) 형상(形象)이란 心中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수단에 의하여 具象化하는 일, 또는 形狀, 形相의 의미로 쓰여 물건이나 사람의 형체와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언급하는 형상이란 후자를 가리킨다.

3) 金鎮永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桓玄의 인물형상〉:《中國文化研究》 2006, 8輯 196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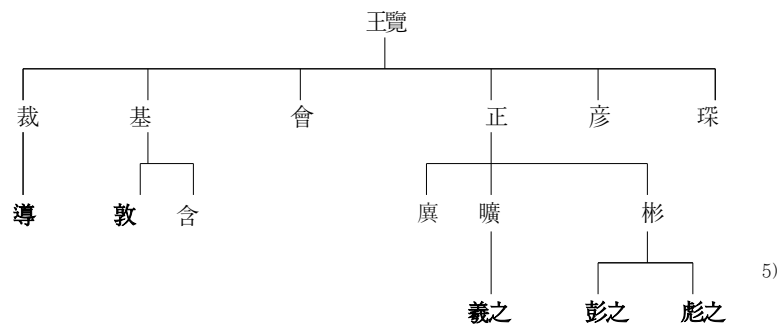
4) 敘事의 중심이 사건에 있는 《晉書》와는 달리 《世說新語》는 敘事의 핵심이 인물형상의 부각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橫의 연구방법에 의한 개별적 분석(예를 들어 비교, 비유 등의 표현기교)이나 典型別로 분석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縱的인 방법으로써 각 편목에 산재되어 있는 한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출, 분석하는 종합적인 인물분석을 통하여 王導와 謝安, 桓玄 등 주요인물 약 16명의 인물형상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그 나머지 인물들의 형상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世說新語》의 史料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世說新語》를 통해 본 王羲之의 인물형상 121  
 중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王羲之의 완전한 형상을 창출해 보고, 아울러 품평의 특징  
 과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王羲之는 《世說新語》 등장인물 중 약 70%를 차지하  
 고 있는 東晉의 인물들 가운데 총 등장회수 44회(품평회수 19회, 피품평회수 11회)  
 라는 높은 등장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타인을 품평하는 회수가 많다는 것에서  
 당시 그가 처했던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고, 피품  
 평의 회수나 내용 역시 대부분 好評으로 그의 인물됨이 매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그를 단순히 楷書·行書·草書의 각 서체를 완성시킨 중국 최고의 書聖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世說新語》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명문귀족 출신으로  
 혼란한 시기 정치의 중심에서 經世의 재략가로서도 활발히 활약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 2. 王羲之의 인물형상

### 1) 王羲之가 처했던 시대상황

王羲之는 오늘날의 山東省 臨沂縣인 琅琊출신으로 字는 逸少이며, 東晉 元帝시  
 기 右軍將軍, 會稽內史를 지내 그를 王右軍이라고도 한다.



것이 아니고, 《世說新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다.

그의 부친인 王曠은 淮南太守를 지냈으며, 숙부인 王導는 東晉이 부흥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일등공신이였다.

이 당시 琅邪王 元帝는 王導와 본래 사이가 좋았다. 王導는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을 이미 알고 마침내 받들어 모시기로 마음이 기울었으며 속으로 復興의 뜻을 품었다. 元帝 또한 훌륭한 용모에 그릇이 출중하여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였고 우정 또한 깊어졌다. (時元帝爲琅邪王, 與導素相親善. 導知天下已亂, 遂傾心推奉, 潛有興復之志. 帝亦雅相器重, 契同友執.)

위 《晉書》 卷65 〈王導傳〉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王羲之의 숙부인 王導는 東晉의 元帝 司馬睿와 막역한 사이로 中原이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예견하고 元帝에게 江南으로 옮겨가도록 권하였다. 太興 元年(317) 司馬睿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王導는 軍諮祭酒에 제수되어 모든 政事를 도맡아 처리하는 등 東晉 중흥의 최대 공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숙부인 王敦 역시 東晉 건국의 핵심세력이었던 王導와 함께 군권을 장악하고 큰 세력을 형성하여 「王氏와 司馬氏가 천하를 함께 한다(王與馬, 共天下)」<sup>6)</sup>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琅琊王氏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이렇듯 王羲之는 귀족명문가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으며 집안의 후광으로 정치적·사회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王羲之가 처했던 시기는 야심가들에게 정권이 유린되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太康 3년(325) 明帝가 죽고 겨우 5세가 된 太子 衍이 제위를 계승하여 東晉의 제3대 황제인 成帝가 되었다. 成帝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庾太后(明帝 穆皇后)가 섭정을 하였는데, 中書令 庾亮은 태후의 큰 오빠로 王導와 함께 정사를 보좌하며 전권을 장악하였다. 庾亮이 죽고 庾亮의 동생 庾翼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庾爰之를 荊州刺史의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표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이를 거절하고는 桓溫을 東晉의 군사적 요충지인 荊州의 刺史로 임명하고 서부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여 이후부터 荊州는 譙郡 桓氏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桓溫이 後蜀을 정벌하고 돌아온 후, 그 권위와 명성은 날로 신장되어 조정에서

5) 琅琊王氏 가계도.

6) 《晉書》 卷98 〈王敦傳〉 참조.

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등용하였으나 殷浩가 前秦 정벌을 실패하고 패출됨으로써 内外의 大權은 모두 桓溫이 장악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sup>7)</sup>

한편 중국 서체의 발달사에 있어 가장 중대한 변화는 王羲之의 등장에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王羲之가 활동하면서부터 서법이 더 이상 단순한 문자의 기록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書法史에서 처음으로 서법예술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어 書聖으로 추앙받는 그의 글씨는 정신과 기교가 조화를 이루어 수려하고 우아하면서도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의 서법은 南朝의 귀족들 사이에 매우 성행하였고, 唐 太宗이 그의 글씨에 심취한 후로는 더욱 유행하여 전통서법의 주류가 되었다. 王羲之體는 예술로 승화하여 감상의 대상이 될 만큼 그 위치가 확립되었으며, 行書와 草書는 지금까지 그의 서법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sup>8)</sup> 王羲之는 대서예가로서 중국 서체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군장군·회계내사가 되었다. 이 때 은호와 환온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왕희지는 국가의 안녕이 내외의 화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은호에게 이를 충고하였으나 은호는 듣지 않았다. 은호가 장차 북벌을 행하려 함에 왕희지는 분명 대패할 것이라 여겨 글을 보내 이를 만류하였는데, 그 어투가 매우 지엄하였다. 은호가 결국 북벌을 떠나고 과연 요양에게 대패하였다.(乃以爲右軍將軍、會稽內史。時殷浩與桓溫不協，羲之以國家之安在於內外和，因以與浩書以戒之，浩不從。及浩將北伐，羲之以爲必敗，以書止之，言甚切至。浩遂行，果爲姚襄所敗。)

이때 나라에 기근이 들어 왕희지는 번번히 곡창을 열어 구휼하였다. 그런데도 조정의 부역은 많고 무겁기만 했는데, 오히려 특히 심하였다. 왕희지는 매번 상소를 올려 이 일로 논쟁하였으며 그의 주장이 자주 받아들여졌다. 또한 상서복야 사안에게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時東土饑荒，羲之輒開倉振貸。然朝廷賦役繁重，吳會尤甚。羲之每上疏爭之，事多見從。又遣尙書僕射謝安書。)

7)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6-58쪽 참조.  
8) 강용규 著 《인물로 보는 중국사》 (서울, 학민사, 2000) 244-247쪽, 마이클 설리번 著, 한정희·최성은 譯 《중국미술사》 (서울, 예경, 2000) 186쪽 참조.

그러나 관직경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위 《晉書》 卷80 〈王羲之傳〉의 두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經世의 재략도 있었다. 이 시기 국정을 맡고 있던 會稽王 昱(元帝의 少子)의 총애를 받으며 揚州刺史로 있던 殷浩에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충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벌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확고한 愛民정신으로 조정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民政을 논한 글을 쓰기도 한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치가이기도 했다.

## 2) 《世說新語》에 보이는 王羲之의 인물형상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총 44회의 고사는 주로 賞譽편과 品藻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王羲之의 출중한 인품과 재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은중군(殷浩)이 왕우군(王羲之)을 평하길 : “일소(王羲之)는 청아하고 존귀한 인물이다. 나는 그를 매우 친애하고 있는데, [이 집에 있어서는] 당대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다.(殷中軍道王右軍云:「逸少清貴人, 吾於之甚至, 一時無所後!」)<sup>9)</sup>

당시 사람들이 왕우군(王羲之)을 폄평하길 : “떠다니는 구름처럼 표일하다가 도 놀란 용처럼 솟구친다”라고 했다.(時人目王右軍: 飄若遊雲, 矯若驚龍。)<sup>10)</sup>

위의 기사 이외에 言語편 제62조 劉孝標 注引 《文字志》<sup>11)</sup>, 賞譽편 제80조 劉孝標 注引 《文章志》<sup>12)</sup>, 賞譽편 제100조 劉孝標 注引 《晉安帝紀》<sup>13)</sup> 등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王羲之는 기품이 청아하고 고상하였으며 일찍부터 널리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世說新語》 賞譽편 제80조.

10) 《世說新語》 容止편 제30조.

11) 「왕희지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맑고 빼어나 숙부 왕이에게 칭찬을 받았다(羲之少朗拔, 爲叔父 廙所賞)」

12) 「왕희지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어서 보통 무리와는 달랐다(羲之高爽有風氣, 不類常流也)」

13) 「왕희지는 풍격이 청아하고 고상하다(羲之風骨清舉也)」

왕일소(王羲之)가 회계내사가 되어 처음 부임했을 때 지도림(支遁)이 그곳에 있었다. 손흥공(孫綽)이 왕일소에게 말하길 “지도림은 기발하고 특이한 사람으로서 가슴속에 품은 생각이 언제나 뛰어나니 경계서는 한 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라고 했지만, 왕일소는 본래 스스로 줄곧 준일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여 지도림을 거의 경시했다. 나중에 손흥공과 지도림이 함께 수레를 타고 왕일소의 집을 찾아갔지만, 왕일소는 궁지가 대단하여 그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王逸少作會稽, 初至, 支道林在焉. 孫興公謂王曰: 支道林拔新領異, 胸懷所及, 乃自佳, 卿欣見不?, 王本自有一往雋氣, 殊自輕之. 後孫興與支共載往王許, 王都領域, 不與交言.)<sup>14)</sup>

왕우군(王羲之)은 평소에 왕람전(王述)을 경시했는데, 왕람전이 만년에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왕우군은 더욱 불만스러웠다. 왕람전이 회계에서 親喪을 당하여 산음에 머물면서 상을 치르고 있었다. [그래서] 왕우군이 [왕람전] 대신 회계내사가 되었는데, 누차 조문하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람전을] 찾아가 [조문하러 왔다고] 직접 통보했는데, 喪主가 哭禮를 하고 났더니, [왕우군은 왕람전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지도 않고 떠남으로써, 그를 능멸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원한이 크게 생기게 되었다. 나중에 왕람전은 양주자사가 되었지만, 왕우군은 여전히 회계내사로 있었다. [왕우군은]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참군 한 명을 조정에 파견하여 회계군을 [양주에서] 분리시켜 [따로] 월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명을 받은 사자가 임무에 실패하는 바람에 [왕우군은] 당시 명사들로부터 크게 비웃음을 받았다. 왕람전은 종사에게 은밀히 명을 내려 회계군의 여러 불법 행위를 조사하게 했는데, 이전부터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왕우군에게] 스스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게 하고자 함이었다. 왕우군은 결국 병을 핑계 대고 회계내사 직을 그만두었으며, 분개해하다가 죽고 말았다. (王右軍素輕藍田, 藍田晚節論譽轉重, 右軍尤不平. 藍田於會稽丁艱, 停山陰治喪: 右軍代爲郡, 屢言出弔, 連日不果. 後詣門自通, 主人既哭, 不前而去, 以陵辱之. 於是彼此嫌隙大構. 後藍田臨揚州, 右軍尙在郡: 初得消息, 遣一參軍詣朝廷, 求分會稽爲越州: 使人受意失旨, 大爲時賢所笑. 藍田密令從事數其郡諸不法, 以先有隙, 令自爲其宜. 右軍遂稱疾去郡, 以憤慨致終.)<sup>15)</sup>

위의 두 고사를 통하여 王羲之는 대단한 자긍심과 자존심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支道林은 25세에 出家하여 謝安, 殷浩, 郗超, 何次道 등 당대의 명류 인

14) 《世說新語》文學편 제36조.

15) 《世說新語》仇隙편 제5조.

사들과 교류하며 답론을 나누던 뛰어난 학자며 승려였다.<sup>16)</sup> 또한 王述은 당시 명문세족이었던 太原王氏의 후예로서 愛民정신과 덕망으로 숭상받던 王承의 아들이다. 王羲之와 王述 두 사람 모두 당시 명성이 드높았던 인사였으나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평소 王羲之의 능멸과 무시에 결국 王述은 그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후 철저히 정치적으로 보복하였다. 이 일로 치욕을 느끼고 부모의 묘 앞에서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분개해하다가 죽고 말 정도였으니 王羲之의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간문제(司馬昱)가 대전 위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왕우군(王羲之)과 손흥공(孫綽)이 뒤에 있었다. 우군이 간문제를 가리키며 손흥공에게 말하길 : “저 사람은 명예를 밝히는 자이다!”라고 하자, 간문제가 돌아보며 말하길 : “세상엔 본래 이빨 날카로운 놈이 있지!”라고 했다. 그 후에 왕광록(王蘊)이 회계내사가 되었을 때, 사거기(謝玄)가 곡아로 나가 그를 전송했는데, 비서승에서 파직당한 왕효백(王恭)도 그 자리에 있었다. 사거기가 그 일을 언급하다가 왕효백을 보며 말하길 : “왕승(王恭)의 이빨도 무디진 않을텐데”라고 하자, 왕효백이 말하길 : “무디지 않지요, 역시 꽤 효과가 있지요”라고 했다. (簡文在殿上行, 右軍與孫興公在後, 右軍指簡文語孫曰: 此噉名客!, 簡文顧曰: 「天下自有利齒兒!」, 後王光祿作會稽, 謝車騎出曲阿祖之, 王孝伯罷祕書丞在坐, 謝言及此事, 因視孝伯曰: 「王丞齒似不鈍?」, 王曰: 不鈍, 頗有驗. )<sup>17)</sup>

‘이빨 날카로운 놈(利齒兒)’은 독설가, 즉 直言을 서슴지 않고 논변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sup>18)</sup> 당시 老莊思想을 숭상하는 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해 儒家에서 강조하는 長幼有序에 제한 받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폄평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폄평하는 등 매우 활발한 폄평활동을 했으며, 또한 지위나 나이의 高下와 상관없이 好評과 惡評을 주고 받았다. 王羲之의 고사 다수가 인물의 풍격과 재능 등을 칭찬하고 폄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賞譽편과 品藻편에 집중되

16) 慧皎 著 柳月誕 편역 《고승전》 (서울, 자유문고, 1991) 82-83쪽 참조.

17) 《世說新語》 排調편 제54조.

18) 《晉書》 卷80 (王羲之傳)에도 “장성하여 논변이 좋아졌고 이로써 골경이라 불렀다(及長, 辯瞻, 以骨鯁稱)라는 기사가 있는데, ‘骨鯁’이란 원래 생선가시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利齒兒’와 비슷한 의미로 강직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른다.



어 있으며, 그 역시 날카로운 논변으로 하인, 친척, 명문사족, 심지어 황제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품평대상으로 하여 왕성하게 품평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왕우군(王羲之)이 젊었을 때, 주후(周顛)의 [연회에서] 말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후가] 소의 심장을 잘라서 그에게 먹게 했더니, 이로 인해 [사람들이 왕우군을] 달리 보게 되었다.(王右軍少時, 在周侯末坐: 割牛心噉之, 於此改觀.)<sup>19)</sup>

유공(庾亮)이 이르길 : “일소(王羲之)는 국가적인 인재로 등용된 인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유예(庾倩)가 [왕일소의] 비문에 쓰길 : “여러 사람 중에서 발탁되어 국가적인 인재로 등용되었다”라고 했다.(庾公云: 逸少國舉。」故庾倪爲碑文云: 「拔萃國舉。」)<sup>20)</sup>

왕우군(王羲之)이 남쪽에 있을 때, 승상(王導)이 편지를 보내 조카들이 뛰어나지 못함을 늘 탄식하며 이르길 “호돈(王彭之)과 호득(王彪之)은 여전히 그 모양이다”라고 했다.(王右軍在南, 丞相與書, 每歎子姪不令. 云: 虎兇·虎犢, 還其所如.)<sup>21)</sup>

周顛는 청렴 정직하고 덕망을 지닌 인물로, 특히 죽음을 무릎쓰고 모반을 일으킨 王敦에게 호된 질책을 할 정도로 준엄하여 명성이 높았다. 그 당시 세간에서는 소의 심장을 귀하게 여겼는데 周顛는 어린 王羲之의 인물됨과 재능을 이미 간파하고 그 귀한 심장을 그에게 먼저 먹게 했던 것이며, 이 일로 王羲之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於是始知名)되었다.<sup>22)</sup> 庾亮은 나이 어린 成帝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庾太后的 큰 오빠로 王導와 함께 정사를 보좌하며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역시 王羲之를 국가적인 인재로 등용된 인물<sup>23)</sup>로 높게 평가 하고 있다. 또한 虎犢은 王

19) 《世說新語》 汰侈편 제12조.

20) 《世說新語》 賞譽편 제72조.

21) 《世說新語》 輕詆편 제8조.

22) 《晉書》 卷80 〈王羲之傳〉 참조.

23) ‘國舉’란 국가적인 인재로 등용된 인물을 가리키며, 이보다 낮은 단계의 명예를 지닌 인물은 ‘鄉舉’·‘郡舉’라고 불리웠다. 金長煥 譯註 《世說新語》(서울, 살림, 2000) 中卷 賞譽편 제72조 譯註 참조.

彪之의 어릴 적 字이고, 虎狔은 王彪之의 어릴 적 字이다. 狔은 새끼 돼지, 獮은 새끼 소를 가리키는데, 王導는 王羲之의 조카인 王彪之와 王彭之를 그들의 小字에 비유하여 王羲之의 재능과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王羲之가 45세가 되었을 때 右軍將軍과 會稽內史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會稽(浙江省 紹興)는 남쪽에 있어 보통 內地라고 부르며 兵火의 흔적이 없는 수려한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에 王羲之는 謝安, 李充, 支遁 등 각계의 명사들을 會稽山 蘭亭으로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 한 수씩 지었으며, 王羲之가 이들 시의 서문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蘭亭集序>이다. 이 <蘭亭集序>의 낭만에 찬 문장과 서체는 고급에 다시 없는 명필로서 그의 서체 가운데에서도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다.

치가빈(郗超)이 사공(謝安)을 평하길 : “무릎을 맞대고 담론해 보니 비록 [철리]를 ‘통찰한[徹]’ 것은 아니지만 [논리]가 면밀하고 매우 조리가 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 “우군(王羲之)은 ‘경지에 이르렀다[詣]’라고 했는데, 치가빈이 그것을 듣고 이르길 : “[우군은]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고, 정작 [사공과] 같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사공은 치가빈의 말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郗嘉賓道謝公: 造膝雖不深徹, 而纏綿綸至。)又曰: 「右軍詣嘉賓。」嘉賓聞之云: 不得稱詣, 政得謂之朋耳。」謝公以嘉賓言爲得。)24)

이 시기는 어지러운 정치와 계급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질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통치집단 내부의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과 정권쟁취를 위한 암투는 끊임 없이 있었고, 허위와 보복이 난무하는 급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士人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山水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거나 飮酒와 服藥에 도취되어 放蕩한 생활을 하는 등 처세의 방식이 크게 바뀌어 당시 淸談의 분위기가 널리 만연되었다. 魯迅이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에서 「東晉 이후에는 문장을 짓지 않고 淸談이 유행하였는바, <世說新語>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東晉以後, 不做文章而流爲淸談, 由世說新語裏可以看到)」라고 지적한 것처럼 東晉 시기에 이르러 淸談의 기풍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士族文人은

24) <世說新語> 品藻篇 제62조.

물론 승려와 제왕들까지도 淸談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朝野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謝安과 王羲之는 철리에 대해서 서로 같은 무리이다(謝·王於理, 相與爲朋儔也)라고 한 品藻편 제62조 劉孝標 注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청담실력으로 당시 담론을 주도하였던 江左의 풍류재상 謝安과 비견될 정도로 王羲之는 청담의 명사였다.

왕우군(王羲之)이 사태부(謝安)와 함께 야성에 올랐는데, 사태부는 유연히 고원한 생각에 잠겨 세속을 초탈한 뜻이 있었다. 왕우군이 사태부에게 말하길 “하우는 王事에 진력하여 손발에 굳은 살이 박혔고, 문왕은 저녁 늦게야 식사할 정도로 하루 종일 한가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도성의 사망에 보루가 많이 세워져 있으니, 마땅히 사람들은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허한 담론을 하느라 실무를 제쳐두고, 헛된 문장을 짓느라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니, 아마도 지금에 적절한 일이 아닌 듯 합니다”라고 하자, 사태부가 답하길 “秦이 상앙을 등용했지만 두 세대만에 망했으니, 어찌 청담이 환난을 부른다고 하겠소이까?”라고 했다. (王右軍與謝太傅共登冶城, 謝悠然遠想, 有高世之志. 王謂謝曰: 夏禹勤王, 手足胼胝; 文王旰食, 日不暇給. 今四郊多壘, 宜人人自效; 而虛談廢務, 浮文妨要, 恐非當今所宜!) 謝答曰: 秦任商鞅, 二世而亡; 豈淸言致患邪?)<sup>25)</sup>

그러나 王羲之와 謝安 두 사람 모두는 東晉의 名士이지만 청담에 대해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謝安은 유유히 세속을 초월하고 있고, 王羲之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화 역시 침예하게 대답하고 있다. 王羲之는 역사적 사실을 두루 인용하여 완곡하게 건의하였으나, 謝安 역시 역사를 근거로 秦이 망한 것은 청담 때문이 아니라고 하며 청담을 옹호하고 있다. 당시 왕실의 권위와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한 東晉 왕조는 강력한 豪族들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정의 중신인 謝安은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써 청담에 심취하고 후덕한 정치를 하여 호족과 왕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반면 王羲之는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25) 《世說新語》 言語편 제70조.

魏晉시대 귀족생활을 배경으로 주로 서예, 회화, 彈琴, 조각 등 다방면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고사를 모아놓은 巧藝편에 대서예가인 王羲之의 고사가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世說新語》 각각의 편목에 산재되어있는 고사를 적출 집중시켜 본 王羲之의 또 다른 모습은 비단 예술가로서만이 아니라 청아하고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으며, 널리 국가적 인재로 인정될 정도로 그 재능 역시 출중한 인물이었다. 또한 혼란한 정국속에서 예리한 논변으로 소신있게 直言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하고 재략있는 현실적 정치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 3. 맺음말

王羲之의 서법과 인생태도는 魏晉南北朝시대 審美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서법 예술풍격의 형성은 자신의 심미의식에 의해 결정되며, 심미관념의 형성 역시 시대 풍모의 영향과 제약을 직접 받게 된다. 王羲之가 생존했던 시기는 중국역사상 중요한 전환의 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극도의 시대혼란과 맞물려 兩漢 철학의 해체와 清議, 清談의 흥기는 전대 미문의 사상적 자유와 해방을 촉진하게 되었고, 士人들의 생존의식과 사고 역시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생관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宗白華 역시 그의 저서인 《美學散步》에서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치문화배경 및 그 심미특징에 관해 언급하면서 魏晉南北朝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럽고 美的 성취가 가장 컸던 시기였음을 지적하였다.<sup>27)</sup> 이 시기 새로운 심미관념과 표준은 문인 자신들의 개성자각을 기초로 확립

26) 이러한 王羲之의 정치적 태도는 본 논문 2장 1절에서 인용한 《晉書》 卷80 (王羲之傳)의 두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27) 「漢末魏晉六朝는 중국정치에 있어 가장 혼란한 시대였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회였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러웠으며 지혜가 풍부하고 가장 열정적인 시대였다. …… 따라서 이 수 백년 간의 시기만이 정신적인 대해방과 인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자유를 누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속의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잔혹함, 거

《世說新語》를 통해 본 王羲之의 인물형상 131  
되었고, 각 중 예술 역시 자유로운 자아의 표현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였는데 王羲之가 서법분야에 있어 걸출한 대표였다.

한편, 우리가 《世說新語》의 인물묘사를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世說新語》가 인물들의 사소한 일화들을 수집하여 모아놓은 輯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明清소설 특히 현대소설의 치밀하고 화려한 구성, 묘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고대소설의 맹아시기 《世說新語》는 인물중심 표현에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인물성격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물에 대한 풍부하고 빼어난 예술적 표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처해있던 역사적 상황과 인물의 성격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 것이다.

####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趙炳華, 徐東轍 共著 《現代文章論》 서울, 열화당, 1977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葉朗 著 《中國美學史大綱》 臺北, 滄浪出版社, 1986  
王能憲 《世說新語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2  
寧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魯迅 《中國小說史略》 臺北, 風雲時代出版社, 1989

---

육함과 사악함이 함께 극도로 발휘되었다.(漢末魏晉六朝是中國政治上最混亂, 社會上最痛苦的時代, 然而却是精神史上極自由, 極解放, 最富於智慧, 最濃於熱情的一個時代……只有這幾百年間是精神上的大解放, 人格上思想上的大自由, 人心裏面的美與醜, 高貴與殘忍, 聖潔與惡魔, 同樣發揮到了極致.)」 宗白華 著 《美學散步》(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208쪽 참조.

- 宗白華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 柳月誕 編譯 《高僧傳》 서울, 자유문고, 1991
- 강용규 著, 《인물로 보는 중국사》 서울, 학민사, 2000
- 마이클 설리번 著, 한정희·최성은 譯 《중국미술사》 서울, 예경, 2000
- 寧稼雨 <世說新語是志人小說觀念成就的標志>;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2
- 廖麗鳳 <世說新語之人物群像及描寫技巧研究> 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 1989
- 葉慶炳 <論世說新語比較人物優劣>; 《書評書目》57, 臺北, 1978
- 葉柏村 <世說新語中所見魏晉清談風尚>;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2/10
- 宗白華 <論世說新語和晉人的美>; 《美學與意境》, 北京, 人民出版社, 1987
-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鑒之研究> 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 1982
- 廖伯森 <世說新語中人物美學之研究> 臺灣東海大學碩士論文, 1990
- 方碧玉 <魏晉人物品評風尚初探-以世說新語為例> 臺灣國立中興大學碩士論文, 1996
- 金鎮玉 <世說新語에 대한 一考察>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83

#### 《中文提要》

正史《晉書》以敘事為主旨, 在於闡明史實間的前因後果以及相互淵源。從記事的展開過程來看, 敘事的核心在於事件本身, 在具體且透徹地呈現登場人物的人品、形象(面貌)方面, 礙於《晉書》對人物的著墨有限, 以至於很難全面的掌握人物的形象。然而, 《晉書》的編纂過程中貢獻良多, 被用為參考依據的《世說新語》在全篇敘事上則集中於人物形象及人品上, 有別於《晉書》的是, 其在探討人物性格上的深刻以及多變, 書中對人物豐富且獨到的描寫功力堪稱藝術, 生動地刻畫出歷史事件以及人物的性格, 躍然紙上。

論者考量《世說新語》有鑑於《晉書》以事件作為敘事中心, 而將敘事核心突顯於人物形象該點上, 在研究方式上捨棄既存的橫向個別分析(例, 比較、比喻等表現技巧)或典型類別的分析方式, 欲採以縱的面向摘選出散置於各篇目中的人物及其相關內容, 給予綜合性的人物分析。

同時，儘管《世說新語》並不具現代意念的小說型態，不過其書中人物在不同狀況下呈現出多樣面貌，或是某些性格或是個性反覆出現在書中被加以強調及詮釋，因此透過對人物透徹的重點強調，可以全盤地了解該人物的形象。本論文是論者直到現在發表的連續論文之一，這次以中國的大書藝術家琅琊王氏王羲之為探討核心，透過此般對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可將書中魏晉士人當代的思想主流以及品評特徵等考察。

關鍵詞：世說新語，王羲之，人物形象，人物品評